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의 활용

정일홍*

요 약

본 연구는 공수도의 대련경기 기술을 통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완전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수도 수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수도의 가치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은 손기술, 발기술, 던지기기술로 구분된다. 첫째, 손기술이다. 위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가벼운 스텝으로 위해자의 주요급소 부위에 앞손치기 또는 뒷손치기가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직선공격이 쉽지 않을 경우 돌려치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둘째, 발기술이다. 위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위해자의 주요급소를 향해 앞차기, 옆차기 뒷차기의 직선적인 공격과 앞돌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의 곡선적 공격으로 위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지기 기술이다. 손과 다리 그리고 상대의 균형을 이용한 기술로 걸기와 후리기로 무너뜨리고, 손과 발기술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면 완전히 제압된다. 공수도 대련경기기술은 손기술과 발기술 그리고 던지기 기술의 각각의 기술로 위해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장소와 거리 등 환경에 의해 손기술과 발기술, 발기술과 손기술, 손기술과 던지기 기술, 발기술과 던지기 기술, 던지기 기술과 발 또는 손기술 등 다양하게 습관적으로 대련 경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수도는 경호무도로서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Application of Karatedo Techniques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Il-Hong Je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let people recognize the necessity of Karatedo training and enhance the value of it. Karate sparring is quite helpful to learn the skills that how to escort a protectee as a guard. The skills are divided into hand skills, foot skills and pitching skills.

Firstly, it is the hand skills. 'ap-son-chi-gi' or 'di-son-chi-gi' at pressure points such as face, neck and abdomen is effective to overpower adversary. If straight attacks are not easy, 'return stroke' is better.

Secondly, it is the foot skills. Front kick towards pressure points, straight attacks like side kick and hindpaw kick and curving attacks like front-spinning kick, 'ap-hu-ri-gi' and 'di-hu-ri-gi',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the foot skills.

Lastly, it is the pitching skills. To overpower completely, tripping up and 'hu-ri-gi' for breaking the balance and then hand and foot skills for attacking the pressure points are the best way.

Key words : karatedo, application, security guard martial art

1. 서 론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경호임무는 위해자로부터 위해기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경호 및 방어경호의 측면에서 선발경호와 근접경호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된다. 특히 경호무도는 이러한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전문 근접경호원의 몸을 수단으로 하여 위해자의 공격을 방어 및 제압하는데 필요한 무도이다[1].

공수도는 손과 발을 중심으로 온몸을 이용하여 치고, 차고, 막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써 정신수양을 겸한 무도이며, 위급시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이자 심신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스포츠이다[2]. 이러한 공수도는 189개국인 스페인의 세계공수도연맹에 가맹되어 올림픽채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청의 공무원시험에 무도가산점이 되는 종목으로 발전하였다. 경호원의 안전과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이상적인 공수도는 대학의 무도, 체육 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경찰경호관련 학과에서 지속적으로 공수도, 경호무도(술), 경찰무도, 호신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공수도 수련을 통한 유단자가 배출되고 있다.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수련의 가치’,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 등의 경호무도로서 다양한 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공수도의 신체적인 체력단련, 방어와 공격의 기술향상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기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타무도의 경우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품새 기법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경호무도로서 유도기술의 활용방안’, ‘경호요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태권도 경호기술의 현장적용 관계연구’, ‘경호상황에서 태권도 기법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경호무도로서 유도의 활용가치와 활용방안’ 등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공수도 수련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완전한 임무수행을 효과적인지와 공수도 수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공수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수도 기술의 활용을 연구해 봄으로서 공수도가 경호무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무도, 무도, 공수도 등 관련 논문, 서적 및 간행물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고, 본 연구의 활용은 공수도 경기에 표준화된 특점기술을 중심으로 활용가능성을 연구하였고, 선행된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다.

2. 공수도의 정의와 경기의 이해

공수도는 현재 북한, 동티모르를 포함한 189개국의 1억여 명이 넘는 수련생들이 수련하는 국제적인 무도스포츠로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단련, 건강, 호신, 여가생활, 군, 경찰, 경호와 경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단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수양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인데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도로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막고,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써 정신수양을 겸한 무도이며, 위급시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이자 심신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스포츠로 정의되고 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올해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13개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2003년 준가맹, 2007년 정가맹종목이 됨에 따라 전국체전 전시종목과 동호인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정식종목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공수도는 공수, 당수, 권법 등으로 불렸으며, 기원은 인도 발생설, 중국 발생설, 오키나와 발생설, 한국 발생설 등 다양하지만[2, 3, 4, 5, 6, 7, 8, 9, 10, 11, 12], 이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외부로 부터의 생존을 위한 무도가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하듯이 군자의 무도로서 윤리를 포함한 철학성을 가지고 있다.

공수도의 기술은 기본자세 및 동작, 형, 대련, 격과, 낙법 등으로 구성된다. 형(形)은 과거의 명인 또는 달인이라는 무사 또는 공수인이 수련 또는 실전을 통한 성과를 기억해두기 위해 기본자세를 토대로 구성되며 막기, 치기, 지르기, 차기, 꺾기, 던지기의 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구성한 것이다. 대련은 형 수련에서 습득한 기술체계를 이용하여 두 선수간의 겨루는 것을 말한다. 대련은 기본대련, 약속대련, 타깃, 새도우대련, 자유대련, 다수인대련 등이 있다. 낙법은 유도기술과 동일하며, 어떠한 장애물이나 상대의 공격기술 그리고 스스로가 넘어졌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착지방법으로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구르기 낙법 등이 있다. 격과는 수련으로 익힌 손발의 기술체계를 송판, 기와, 벽돌 등의 단단한 물체를 통해 실제로 단련의 정도 그리고 그 위력을 실현해 보는 총체적 표현[13]이라고 정의하고 Masayuki Hisataka는 수련자의 기술과 정신 집중력을 시험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정의했다[14].

공수도는 형(Kata) 경기와 대련(Kumite)경기로 분류된다. 이 중 대련경기는 남자 쿠미테 3분, 메달 경기는 4분이다. 여자 경기는 2분이며, 메달 경기는 3분이다. 점수부위는 는 득점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기술을 걸었을 때 얻는다.

공격부위는 머리, 얼굴, 목, 복부, 가슴, 등, 옆구리의 7군데이며, 이 부위에 좋은 자세, 무도인다운 투지, 기력, 잔심(Zanshin), 적당한 타이밍, 정확한 거리조정으로 6가지 득점요인이 포함된 기술을 구사하여야 득점이 이루어진다. 득점은 1점은 중단(Chudan) 또는 상단(Jodan)치기, 돌려치기(Uchi)기술, 2점은 중단(Chudan) 차기기술, 3점은 상단(Jodan)차기, 던져 넘어뜨리거나 쓰러진 상대 선수에게 가해진 모든 득점 기술로 기술에 따라 1점, 2점, 3점 기술로 구분된다.

판정기준은 시험의 결과는 먼저 8점을 얻거나, 시합종료 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 또는 선수들에게 판정(HANTEI), 반칙패(Hansoku), 실격(Shikka ku), 기권(Kiken)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시합종료 시 동점이거나 득점이 없을 경우, 심판단의 판정(HANT

EI)으로 결정한다. 두 선수 중 첫째, 경기자에게서 태도, 투지, 정신력 및 시연 강도의 우위, 둘째, 우수한 전술과 기술의 표현의 우위, 셋째, 동작의 대부분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경기자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판정한다.

3. 경호무도로써의 공수도

경호무도란 우발상황이나 불특정 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정신수양은 물론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막고, 피하고,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서 공격자의 공격의 방어와 제압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운동이다[15].

경호무도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인 운동과는 달리 많은 노력과 숙련으로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습득하는 무술로서 공격형이 아닌 방어형 무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공수도는 선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공수도의 내재된 기술의 총합인 수많은 형(形)은 모두 방어로 부터 시작된다.

경호업무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는 곧 경호대상자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경호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경호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그 의미를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 경호무도는 군대전술이나 테리전술과 같은 공격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보호행동에 들어가는 방어와 보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 등 모든 술기의 체득은 물론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의 복합적인 체력단련과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손발 등 신체 또는 도구 등을 역학적인 원리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기세, 언어 등을 이용한 무형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16]. 공수도 수련을 통한 체력단련은 물론 신체 모든 부위를 이용한 방어와 제압하는 기술이 형과 대련으로 숙달되어 지는데 형은 방어와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대련 또한 상대의 움직임과 위치, 신체의 쓰임새를 숙달시킨다. 보다 고도의 훈련을

위해 좋은 자세, 힘의 포커스, 속도, 힘, 균형, 리듬, 호흡, 동작의 강유를 중시한다. 중심이동이나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시킴으로 경호 무도로 이상적이다[16].

4.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

‘대련(對鍊)’은 ‘형(形)’ 학습 체계에서 습득한 기술 체계를 이용하여 두 선수간의 겨루는 것을 말한다. 움직임의 순서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자유스럽게 기술을 행하는 경기이다. 공수도 대련경기는 일격필살(一擊必殺)의 무도이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련 경기시간은 성인 남자는 3분, 여자와 청소년은 2분이고, 성인부 경기의 메달이 걸린 준결승, 결승은 1분씩 경기시간이 늘어난다. 득점은 기술에 따라 1점(손 공격), 2점(중단차기), 3점(상단차기와 넘어진 상대공격)으로 구분되며, 득점 부위는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옆구리, 등이다. 이러한 득점부위에 좋은 자세, 기력(힘), 잔심(집중 및 공격, 방어의 준비), 적절한 타이밍(스피드), 정확한 절제력(거리조정), 선수다운 투지의 6가지 득점요소가 포함된다. 경기는 8점 차이가 나거나 경기시간이 종료된 후 득점이 많은 경기자 또는 판정이나 상대의 반칙, 실격, 기권이 부과될 때 승패가 결정된다.

손기술은 앞손치기, 뒷손치기, 돌려치기가 있고, 발기술은 앞돌려차기, 앞차기, 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 옆차기가 있고, 던지기 기술은 걸기와 후리가 있다. 공수도 대련 경기의 주요기술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기술	세부 기술	사진	설명	득점 기준
손 기술	앞 손 치기		준비 자세에서 앞에 있는 손 기술	1점
	뒷 손 치기		준비 자세에서 뒤에 있는 손 기술	1점
	돌려 치기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하는 손 기술	1점
발 기술	앞 돌려 차기		앞으로 돌려서 차는 발 기술	중단 2점 상단 3점
	앞 차기		무릎을 접어 앞으로 차는 발 기술	중단 2점 상단 3점
발 기술	뒷 차기		뒤로 차는 발 기술	중단 2점 상단 3점
	앞 후리기		앞으로 발바닥(뒷꿈치)로 차는 발 기술	중단 2점 상단 3점
	뒤 후리기		뒤로 돌며 발바닥(뒷꿈치)로 차는 발 기술	중단 2점 상단 3점
던지기 기술	걸기		발의 안쪽부분으로 상대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손과 발의 공격 기술	신체 부위가 바닥에 -붙었을 때 3점 -붙지 않았을 때 1*3점
	후리기		발의 바깥부분으로 상대를 감아서 넘어뜨린 후 손과 발의 공격 기술	신체 부위가 바닥에 -붙었을 때 3점 -붙지 않았을 때 1*3점

[그림 1] 공수도 대련 경기의 주요기술

5.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의 활용

경호무도는 도보대형, 연설장, 만찬장, 차량경호, 행사장, 주차장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우발적인 상황시에 위협자로부터 완벽한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위협자의 공격의 방어와 제압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은 손기술, 발기술, 던지기기술로 구분된다. 공수도의 수련은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반복적인 단련과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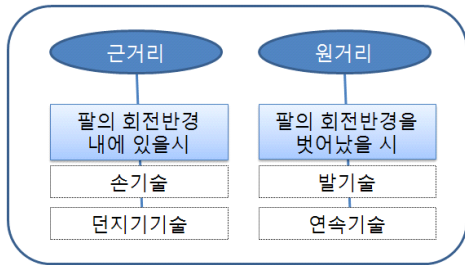
첫째, 손기술이다. 손기술은 정권, 수도, 관수, 이권 등을 이용한 앞손과 뒷손치기 그리고 돌려치기가 있다. 위협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가벼운 스텝에 의한 위협자의 얼굴, 목, 복부 등 주요급소에 앞손치기 또는 뒷손치기가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직선공격이 쉽지 않을 경우 돌려치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또는 거리와 위협자 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컴비네이션 즉 앞손과 뒷손치기, 뒷손과 앞손치기, 뒷손치기와 돌려치기 등 다양하게 손기술을 이용하여 위협자를 제압할 수 있다. 정권치기, 손날등목치기, 바탕손, 팔꿈치 등의 손기술이 경호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17]. 하지만 공수도는 태권도에 비해 손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대련 경기시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기술로 더욱 실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발기술이다. 발기술은 앞꿈치, 뒤꿈치, 발등, 발날, 발바닥, 정강이, 무릎 등의 부위로 앞돌려차기,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 등이 있다. 위협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위협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다리 등의 급소를 향해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의 직선적인 공격과 앞돌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의 곡선적 공격으로 위협자를 제압할 수 있다. 위협자가 칼 공격에 대한 옆차기로 공격하는 것과 맨손, 봉, 몽둥이 공격에 대한 옆차기와 무릎치기 그리고 돌려차기, 뛰어옆차기 등이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고[18], 뺨어차기와 밀어차기 그리고 뉘어차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19]. 옆차기, 얼굴돌려차기, 무릎치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7]. 공

수도는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 기술이 일치하고, 상대를 한방에 제압할 수 있는 발차기 기술이 수련되어지고 있고, 현재 대련 경기에서 상단부위 3점 또는 중단부위 2점을 부여하고 있어 발차기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위협자와의 거리의 안정성을 보면 발차기 기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지기 기술이다. 손과 다리 그리고 상대의 균형을 이용한 기술로 걸기와 후리기로 구분된다. 공수도 대련경기에서 근접전이나 거리가 있을 경우 상대의 움직임과 보고, 걸기와 후리기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손과 발기술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여 마무리 하면 3점이 주어진다. 한팔업어치기, 허리후리기, 발다리후리기, 발목받치기, 허리찍기, 배대뒤치기, 누우면서던지기, 다리잡아메치기, 안다리후리기, 빗당겨치기 등 10개 가지의 기술이 경호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였고[20], 낙법, 급소찌르기, 메치기, 꺾기, 조르기 등의 기술로 불의의 사과와 안전대처능력, 피한으로부터의 호신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육성시킬 수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21]. 이렇듯 유도 메치기 기술들이 공수도 대련경기에 특점으로 이어지는 기술로 사용되고 있고, 아시아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던지기 기술들이 사용되어 관중들로부터 탄성이 나오고 있다

공수도 대련경기기술은 손기술과 발기술 그리고 던지기 기술의 각각의 기술로 위협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장소와 거리 등 환경에 의해 손기술과 발기술(예, 뒷손치고 앞돌려차기, 앞손치고 앞차기 등), 발기술과 손기술(예, 앞차고 앞손기술, 앞돌려차고 뒷손기술 등), 손기술과 던지기 기술(예, 앞손이나 뒷손 공격후 걸기 또는 후리기 기술), 발기술과 던지기 기술(앞돌려차고 걸기, 앞돌려차고 후리기 등), 던지기 기술과 발 또는 손기술(예, 던지기 기술 후 앞손치기 또는 앞돌려차기 등) 등 다양하게 습관적으로 대련경기에서 나오고 있다[그림 2]. 이러한 신체를 이용한 단순하면서 다양화되는 기술은 경호무도로서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거리에 따른 공수도 기술과 경호 간의 매커니즘

경호업무를 위한 주위환경을 파악하고, 상대의 공격에 단시간외의 냉철한 판단력과 민첩한 움직임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수도의 대련경기의 공간과 공간의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공간을 이용하는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방어와 공격 그리고 전진과 후퇴를 포함한 전후좌우를 움직이며, 경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수도 대련기술은 경호무도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대련경기 기술을 통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완전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수도 수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수도의 가치는 높인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공수도, 경호무도, 무도 등 관련서적과 자료, 논문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은 손기술, 발기술, 던지기 기술로 구분된다.

첫째, 손기술이다. 손기술은 정권, 수도, 관수, 이권 등을 이용한 앞손과 뒷손치기 그리고 돌려치기가 있다. 피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가벼운 스텝에 의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 주요급소에 앞손치기 또는 뒷손치기가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직선공격이 쉽지 않을 경우 돌려치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리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컴비네이션으로 다양하게 손기술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둘째, 발기술이다. 발기술은 앞꿈치, 뒤꿈치, 발등, 발날, 발바닥, 정강이, 무릎 등의 부위로 앞돌려차기,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 등이 있다. 피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거리와 방향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다리 등의 급소를 향해 직선적인 공격과 곡선적 공격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거리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발차기 기술이 더욱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지기 기술이다. 손과 다리 그리고 상대의 균형을 이용한 기술로 걸기와 후리기로 구분된다. 근접전이나 거리가 있을 경우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걸기와 후리기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손과 발기술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이 가능하다.

공수도 기술은 다양한 장소와 거리 등 환경에 의해 손기술과 발기술, 발기술과 손기술, 손기술과 던지기 기술, 발기술과 던지기 기술, 던지기 기술과 발 또는 손기술 등 다양하다. 이러한 신체를 이용한 단순하면서 다양한 기술은 경호무도로서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경호업무를 위한 주위환경을 파악하고, 상대의 공격에 단시간에 냉철한 판단력과 민첩한 움직임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수도(대련)의 공간 이동의 중요성과 일치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경호무도로서 방어와 공격 그리고 전후좌우의 상황대처능력으로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그러하기에 공수도 대련기술은 경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호무도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호무도로서의 공수도는 세계인들의 나이와 인종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공경호와 사경호를 위한 경호무도로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기범, 김태민, "한국 합기도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 대한무도학회지, 12권, 3호, 343-359, 2010.
- [2] 김경지, "태권도경기의 과학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논총, 6권, 139-149, 1993.
- [3] 김주훈, 김길평, "태권도와 공수도의 역사성 비교",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권, 1호, 51-61, 2003.
- [4] 대한공수도연맹, 공수도지도자교육자료, 부산, 대한공수도연맹, 2008.
 - [5] 류호평, "한국 태권도 심사제도 변천의 역사적 고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 [6] 안용규, "태권도사관 정립을 위한 제언", 태권도사관 정립과 태권도 정신도를 위한 세미나, 대한태권도협회 연구개발위원회, 1997.
 - [7] 임관인, "태권도 품새와 태극권 투로의 비교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00.
 - [8] 전인배, "공수도의 유래와 명칭 변경",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 [9] 최영의, "실전 공수도교범", 서울, 서림문화사, 1993.
 - [10] 全日本空手道聯盟, "空手道形教本", 東京, 株式會社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1981.
 - [11] 中山正敏, "空手道 實踐", 東京:株式會社永岡書店, 1995.
 - [13] 이경명, "태권도", 서울, 대원사, 1997.
 - [14] 김정행, 최종삼, 김창우, "무도론", 서울, 교학연구사, 2002.
 - [15] 정일홍, "경호무도로서 공수도 수련의 가치", 융합보안논문지, 12권, 5호, 33-39, 2012.
 - [16] 오정주, "경찰체포 호신술 교본", 서울, 도서출판 인동, 1999.
 - [17] 박준석, 서민학, "경호상황에서 태권도기법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무도연구소지, 15권, 1호, 23-40, 2004.
 - [18] 배지호, "경호요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태권도 경호기술의 현장적용 관계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8.
 - [19] 김연준, 김재원,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품새 기법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무도연구소지, 22권 1호, 111-124, 2011.
 - [20] 조성진, "경호무도로서 유도기술의 활용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2009.
 - [21] Mark V. lonsdale, "Body guard", Los Angeles, California.

[저 자 소 개]



정 일 홍 (Il-Hong Jeang)

2002년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사
 2004년 부산대학교 체육학석사
 2010년 부산대학교 체육학박사
 2011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email : karateka@hanmail.net